



2021년 10월 26일 | Global Asset Research

[알파시황]

숫자가 증명

오징어 한 마리 물고가세요

10월 순환매 장세에 주축은 무형자산의 힘을 위시한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업종이었다. 전세계적으로 흥행한 ‘오징어 게임’에 K-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핀테크, 콘텐츠 등 신성장 산업 기대감이 규제 리스크를 상쇄하며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주체별로 보자면 기관이 미디어 업종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매크로 관점에서 보자면, 관련 업종들은 10월 이후 재차 붙어진 반도체 공급난 이슈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난 쇼티지 이슈, 그와 맞물린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시장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반도체 공급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장은 자동차 시장이다. 미국 9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0.7% 감소하였는데, 세부항목으로는 자동차 생산이 -7.2%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신차 생산 차질이 지속되며 중고차 자동차 가격은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중고차 가격 지수를 환산한 Manheim used vehicle value 인덱스는 9월을 기점으로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 10월에는 연고점을 재차 경신하였다.

숫자가 보여주는 K-콘텐츠 파워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는 단순히 기대감에만 그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지식재산권(IP) 무역수지는 통계 편제가 단행된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 흑자 수준인 8억 5,000만달러(약 1조 2,100억원)를 기록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서비스 산업 관련 IP 수출이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 약 19억 6,000만달러(약 2조 3,100억원)의 수익이 창출,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였다.

특히 문화예술 저작권 부분 중 음악 & 영상 저작권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0.2% 급증하며 역대 최대 수준 3억 1,000만달러(약 3,650억원) 흑자를 시현하였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부문은 16억 7,000만달러(약 1조 9,67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반기 기준 최대 무역수지를 기록하였다.

이익 모멘텀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당장은 미디어 & 소프트웨어 업종의 EPS 상향/하향종목 수 상대강도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KOSPI(BM) 대비 두드러지게 시했다. 내년까지 긴 호흡으로 보자면 원가부담 & 마진 개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미디어의 내년 매출액 총이익률은 전체 업종 중 조선, 호텔/레저 다음으로 개선폭이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다. 커뮤니케이션 & 서비스섹터의 2022년 영업이익이익률은 11.7%로 KOSPI(10.6%)를 상회할 전망이다.

관련 아이디어를 반영, 최근 순환매 장세 속 이익 개선 가능성에도 업종 수익률 대비 10월 한 달 간 부진하였던 8개 기업 정리해보았다. (그림 13 참조)

Investment Idea

Equity



주식시황 이재선

02-3771-3624

jaesun0216@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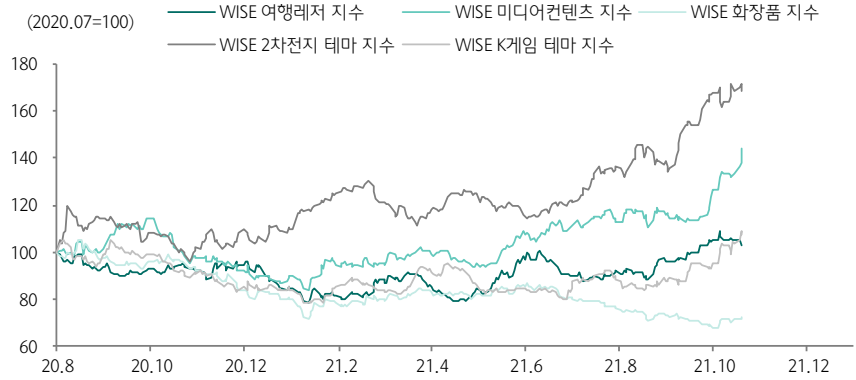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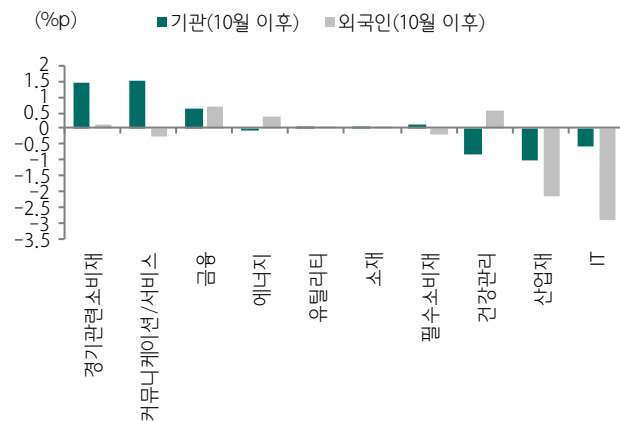
그림 1. 미디어 & 게임 등 콘텐츠 및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약진

10월 순환매 장세에 주축은 무형자산의 힘을 위시한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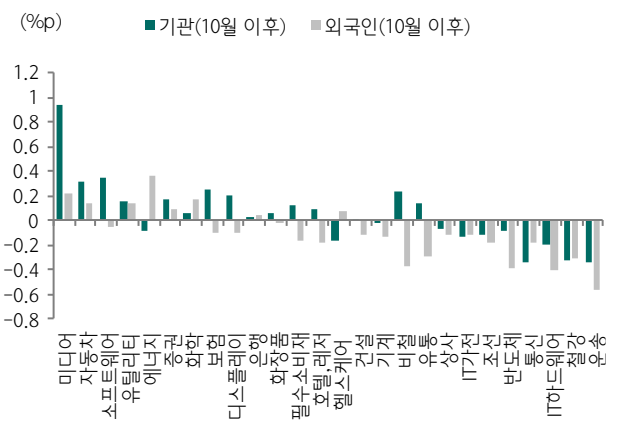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2. 10월 이후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섹터는 경기관련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 서비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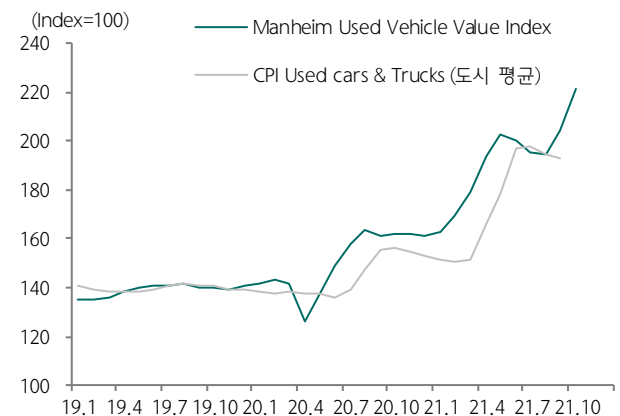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3. 업종별로 보자면 미디어 업종 순매수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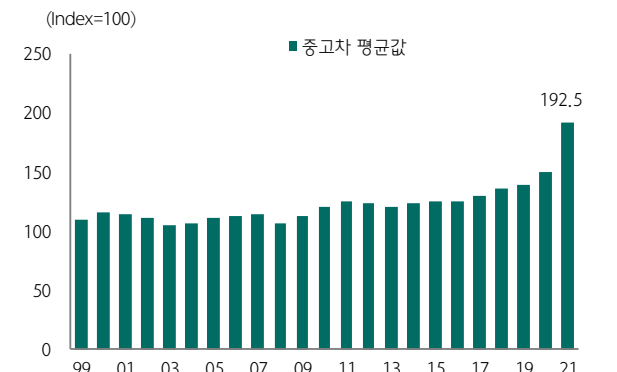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4. 미국 중고차 가격 대표 지수인 Manheim used vehicle value index는 9월을 기점으로 재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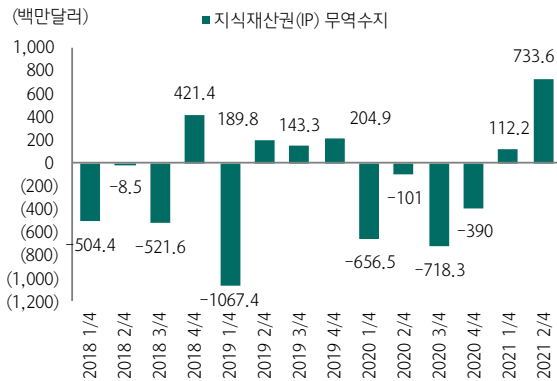
자료: Manheim, 하나금융투자

그림 5. 21년 미국 중고차 평균값 예년대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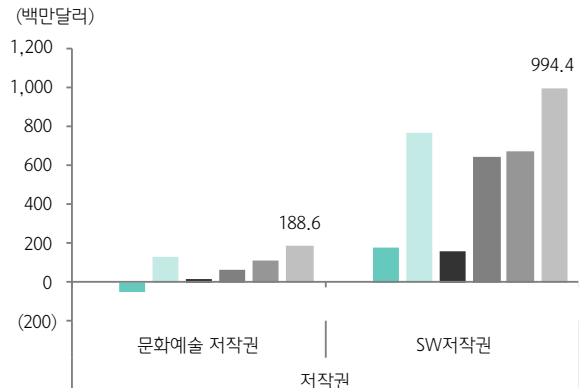
자료: Fred, 하나금융투자

그림 6.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역대 2번째 최대 흑자



자료: 통계청, 하나금융투자

그림 7. 문화예술 저작권과 SW 저작권에서 약 19억 6,000만달러 (약 2조 3,100억원)의 수익이 창출되며 전체 무역수지 흑자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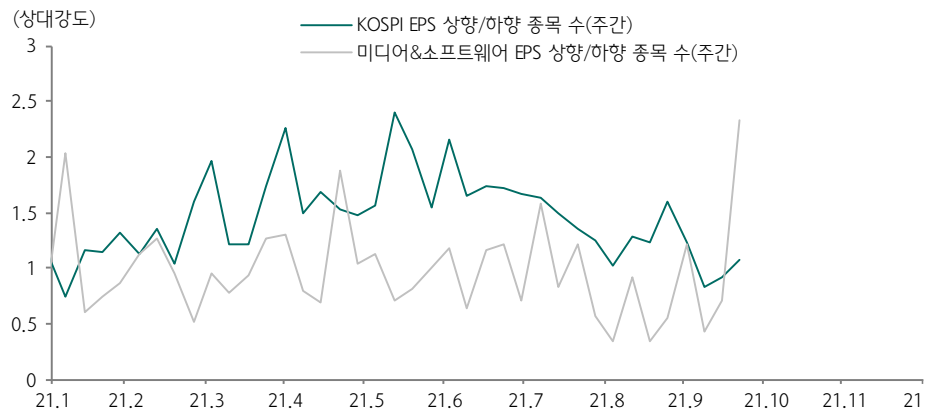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하나금융투자

그림 8. 미디어&소프트웨어 업종의 이익 모멘텀 강도는 BM 대비 두드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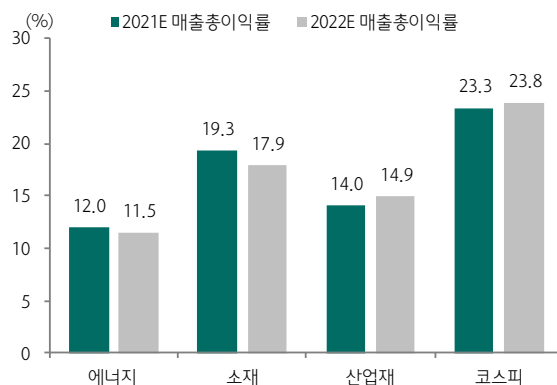
이익 모멘텀 관점에서도 긍정적

당장은 미디어 & 소프트웨어 업종의 EPS 상향/하향종목 수 상대강도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KOSPI(BM) 대비 두드러지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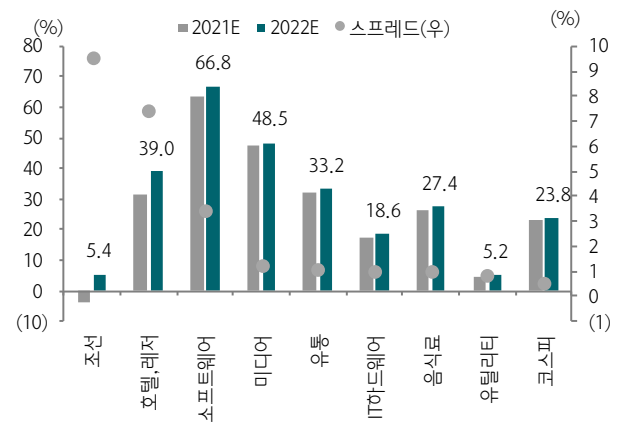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9. 에너지, 소재, 산업재 등 원자재가격 부담이 높은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총이익률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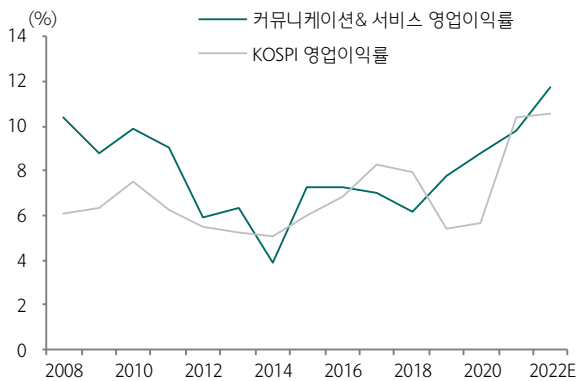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10. 소프트웨어, 미디어 등은 BM 대비 내년 매출액총이익률이 올해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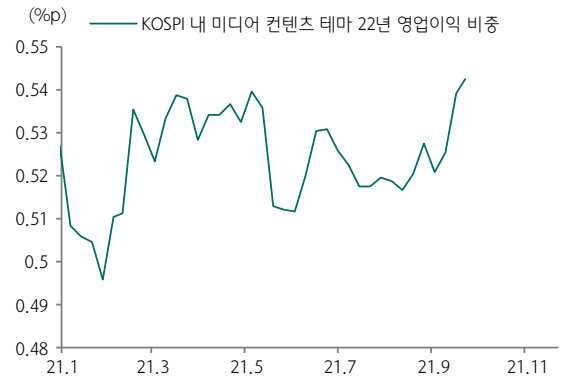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11. 커뮤니케이션 & 서비스섹터의 2022년 영업이익률은 11.7%을 전망, KOSPI(10.6%)를 상회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그림 12. 특히 최근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로 각광 받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테마의 내년 이익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확대 전망



자료: Factset, 하나금융투자

그림 13. 10월 한달 간 매출액 & 이익 상향조정에도 수익률이 낮았던 기업들 정리

관련 아이디어를 반영, 최근 순환매장세 속 이익 개선 가능성에도 업종 수익률 대비 10월 한 달 간 부진하였던 8개 기업 정리

	코드	기업	시총 (십억원)	10월 이후 수익률(%)	22 매출액 상향조정(%p)	22 영업이익 상향조정(%p)
소프트웨어/게임	A259960	크래프톤	12,524.6	-2.0	1.3	1.1
	A012510	더존비즈온	1,865.0	2.9	0.4	0.1
	A215000	골프존	468.8	0.2	1.0	1.4
미디어/콘텐츠	A030000	제일기획	1,647.1	4.6	0.5	0.1
	A041510	에스엠	1,416.3	5.8	0.0	0.1
	A034120	SBS	648.3	3.5	-0.3	13.9
	A053210	스카이라이프	238.1	5.0	11.5	3.4
	A089600	나스미디어	129.55	3.2	2.1	3.0

주: 10월 22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이재선)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10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이재선)는 2021년 10월 26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 본 방송 내용은 기 발간한 조사분석자료에 기반하였습니다.

2) 원 자료의 출처 및 열람가능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열람가능 장소 :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s://www.hanaw.com/main/research>